

# 윤상원 삶 담은 창작판소리 만든다



▶윤상원

광산구·윤상원기념사업회  
12월 초연 목표 '윤상원歌' 제작  
청년 소리꾼 대상 출연진 공모  
'오월광주' 만든 임진택씨가 작창

▶임진택



1980년 5월 27일 새벽, 서른살 청년 윤상원은 담담히 죽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2017년 12월, 이 땅의 젊은 청년 소리꾼이 그의 삶을, 그가 꿈꿨던 세상을 판소리로 들려준다.  
5·18 광주민중항쟁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의 삶을 담은 창작 판소리가 만들어진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와 윤상원열사기념사업회(이사장 김상윤)는 오는 12월 초연을 목표로 '윤상원歌'를 제작한다.  
양 단체는 윤상원 열사 기념 사업과 관련한 장기 프로젝트로 '2030 마스터플랜'을 기획했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창작 판소리 제작과 확산에 위치한 윤상원 열사 생가 인근의 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주 목표다. 광산구는 지난 2015년 윤상원 열사를 소재로 한 음악극 '오월의 노래'를 제작하는 등 오월항쟁의 상징적 인물 윤상원을 조명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창작될 '윤상원家'는 80년 5월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와 항쟁에 참여한 광주시민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그려낸 작품이다. 무엇보다 전국의 젊은 소리꾼을 대상으로 출연진 공모를 진행하는 점이 특징이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20~35세 젊은 소리꾼이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되며 마감은 오는 9월 8일까지다. 서류 심사와 실기 심사(9월21일)를 거쳐 선정된 청년 판소리꾼은 오는 11월 28일 '윤상원歌'의 핵심 부분을 선보이는 '눈대목' 시연회와 12월 21일 본공연에 출연한다.  
판소리 작업은 윤상원의 오랜 벗 임진택이 맡았다. 민중문화운동 1세대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로 TBC TV PD를 지내기도 했던 임씨는 김지하 시인의 시를 소재로 한 창작 판소리 '소리내려', '똥바다' 등을 만든 인물이다.  
특히 광주항쟁 10주기인 1999년,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기초로 1980년 5월 18일부터 시민군이 사수하던 전남도청에 공수부대가 투입된 5월 27일까지 열흘간의 이야기를 풀어낸 창작 판소리 '오월광주'를 만들기도 했다. 그가 벗 상원을 그리며 만든 첫번째

창작 판소리다.  
최근 5월이면 광주에서 '오월 광주'를 공연하기도 했던 임씨는 윤상원 열사를 주인공으로 도청에서의 그의 마지막 결단과 죽음 등 윤상원의 고뇌와 삶을 그리는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양 단체는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윤상원 열사 생가 옆에 커뮤니티 센터를 세울 예정이다. 생가를 찾는 방문객들이 쉬어가는 공간이자 윤열사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을 만날 수 있는 마을 도서관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할 사람은 광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자신의 판소리 공연 영상과 함께 이메일(teahihi@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윤상원 열사 기념 사업 중 하나로 기획하는 '윤상원歌'는 청년 판소리꾼의 열정과 패기로 정의로운 항쟁과 따뜻한 대중세상을 구현한 '오월 광주'를 새롭게 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960-88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창 밖의 유성우'...청년작가 이재원 개인전

29일까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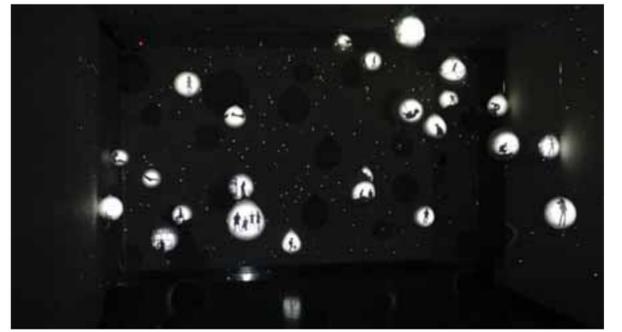
2017년 로터스갤러리 청년신인작가 공모에 선정된 이재원 작가 전시회가 오는 29일까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열린다.

일본 타마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미디어예술전공을 수료한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영상과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은 '창 밖의 유성우'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떠올리며 제작한 비디오 작품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작가는 "현실에서는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작품 속 공간에서 저는 어디선가 저를 지켜봐 주시는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흰색 오브제는 눈물, 빗방울, 행성을 뜻하며 하나하나에



'유성우'

죽은 자와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았다.

또 다른 작품 '떠 있는 창문'은 여러 개의 LED가 어두운 공간에서 꽃잎 위 떠

있는 창문을 비추고 있다. 크고 작은 창문들은 누군가의 삶이든 인생을 말하고 무수한 꽃잎이 무리를 만들어 이야기를 전한다. /김미은기자 mekim@

# 해금과 통기타의 앙상블 전통문화관 내일 서석당서 토요일상설무대

해금과 통기타의 선율이 앙상블을 이루는 퓨전 국악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5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열리는 토요일상설무대로 (주)레미행(대표 이장인)을 초청해 '문화 비빔밥'을 선보인다. 특히 광주·전남 1세대 포크송 가수인 가객 정용주(사진)의 목소리와 해금, 기타, 퍼커션, 신디사이저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깊은 소리가 일품인 해금독주곡으로 동양적인 깊이를 표현한 대표적인 명상곡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적남' 등이 연주되며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별주부전을 퓨전풍으로 재창조한 '난감하네', 대표적인 국악가요 '배 띄워

라' 등이 이어진다.  
가객 정용주는 김용택의 시에 범능스님이 곡을 붙인 국악가요 '섬진강', '어디로 가야 하나', '나를 두고 아리랑'을 통해 멋스럽고 흥겨운 퓨전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주)레미행'은 전통 국악이수자부터 현대 문화예술음악인 EDM 디제잉 전문가까지 한 몸이 된 퓨전 복합 문화예술단체. 이날 공연은 김용희, 김혜인, 문정식, 정용주, 진태경, 한종면, 황연수 씨가 출연한다. 문의 062-232-159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대 문화예술교육원 문예교육사 수강생 모집

전남대 문화예술교육원이 2017학년도 2학기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전공자, 비전공자) 수강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국악·음악·미술·공예 등 4개 분야별로 2일부터 15일(오후 6시까지)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홈페이지(arte.jnu.ac.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예술 계열 전공자는 4개월, 비전공자는 1년6개월 과정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전공자는 직무역량 교과영역 5과목(10학점, 150시간)을, 비전공자는 직무역량 및 예술전문성 교과영역 15과목(40학점, 6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 과목 별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 하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문의 062-530-301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웃음 폭탄으로 무더위 날리세요

### 광주 개그팀 '테더링' 내일 광주아트홀 공연



"무더운 여름, 웃음 폭탄으로 더위를 날려버리세요." 광주에서 활동하는 개그팀 '테더링'이 5일 오후 3시·7시 두차례 광주아트홀(광주시 동구 황금동)에서 열린다.  
지난 2013년 남 웃기기 좋아하는 5명이 뭉쳐 탄생한 그룹으로 현재는 정규 단원 16명을 비롯해 연출, 무대 기획팀까지 모두 30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10여차례 정기 공연을 진행했으며 지난 3월 광주에서 첫 공연을 가지며 관객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다.  
'테더링의 재미있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군대, 학교, 미팅 등 평범한 일상을 소재로 다양한 개그를 선보인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10-2394-2304. /전은재기자 ej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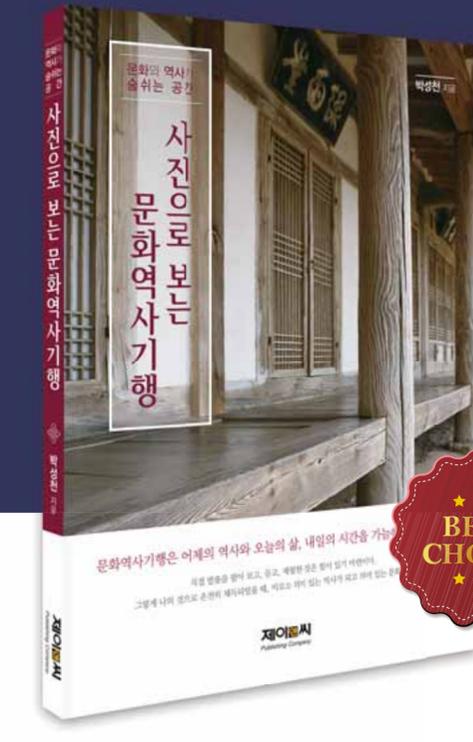
www.jncbms.co.kr

##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공간

# 사진으로 보는 문화역사기행

*문화역사기행은 어제의 역사와 오늘의 삶, 내일의 시간을 가늠하는 기회이다.*

이 책에 수록된 문화역사의 공간들은 우리가 한번쯤은 역사 시간에 들었거나, 드라마나 영화 혹은 문화적 재현을 통해 봤을 직한 장소들이다. 거기에는 절절한 아픔과 통탄의 역사가 스며있기도 했고, 더러는 우리 문화의 진미(眞美)가 오롯이 깃들여 있기도 했다. 책은 기자의 시각, 작가적 상상력, 인문학자의 사유가 투영돼 있어 역사와 문화를 다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설가 특유의 감성적 문체와 저널리스트의 눈으로 본 현장감이 겹쳐져 읽는 맛을 더해준다.



**BEST CHOICE**

**"직접 발품을 팔아 보고, 듣고, 체험한 역사는 힘이 있다. 나의 것으로 온전히 체득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역사가 되고 의미 있는 문화가 되기 때문이다."**

소설가이자 광주일보 기자인 저자는 전남대 영문과와 동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문학박사)을 졸업, 2000년 전남일보 신춘 문예에 소설이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 2006년 소설 시대 신인상을 수상했다. 다양한 영역에 걸친 글쓰기를 통해 사람과 세상, 문화에 대한 지평을 넓혀가는 인문학자이다.



저자 박성천 | 정가 18,000원 | 224쪽 | 크라운판 | 소프트 | 윌커러 | 제이앤씨 출판사